

2007 교육과정 개정 전과 후의 실과 및 가정과 의생활 교육내용 분석

박순자

중앙대학교 가정교육과 겸임교수

Analysis of the Contents of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of Practical Arts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of the 7th Curriculum

Park, Soon-Ja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historically reviewed the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through references. The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had been informally offered as a part of household skill, skill of daily life and home skill before the law of school education was established. Therefore, we have reviewed the changes in the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by separating the prior period between the end of the old Korea and the liberation in 1945, from the later period from the liberation up to now. And also contents of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of the 7th curriculum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had put emphasis on sewing, handicraft and household during the prior period from the end of the old Korea to the liberation, but after liberation, it became involved in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number of classes and the contents of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had been increased and deepened from the 1st term to the 5th term of curriculum. In particular, the 4th and 5th term of curriculum became a turning point where home life section was intensified.

Even though the number of classes was reduced during the 6th term of curriculum, with increase in target school grades for this education, and Home Economics in the middle school remained an independent subject matter. However, during the 7th term of curriculum, Technology-Home Economics Education in the middle school courses led to losing independent subject name and shrinking its contents.

Through the revision in the 7th curriculum, the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achieved great improvement and progress by gaining balance in distribution of contents among school grades and balanc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However it still remains as an issue to be more studied and resolved how well the contents are matched with the interests and attention of students. We need to consider and reflect request of students under learner-centered curriculum.

Considering enormous changes i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it is crystal clear that the gap between existing contents of education and teaching methods and our real life will be widened. Because students' perceptions of value have been diversified, it is our task to develop better contents and learning system in order to help students have interests, attention and desire in clothing and textiles life in line with social needs for desirable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Key Word: 실과 및 가정과교육(Practical Arts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의생활교육내용(Contents of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제7차 개정 교육과정(revision of the 7th curriculum), 학습자 요구도 및 사회적 요구도(learners' needs and social need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되는 주요 원인들로는 교육이론과 학문의 발전에 따르는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의 재검토, 보다 질 높은 교육과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 변화하는 현실에 부응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육 수요자의 개인적 요구와 정치, 사회적 변동에 따른 국가의 이념 및 정책 변화 등을 들 수 있다(송해균 외, 1998).

사회의 변화는 생활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에 따라 의생활도 경제수준의 향상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의류 신소재의 개발로 인한 의복관리의 변화는 물론, 개인의 다양성 요구로 의복의 소비행태와 유행 등에서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실과 및 가정과의 의생활 영역의 교육내용 개정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제7차 교육과정 부분 개정이 완료된 시점이다. 이 시기에 실과(기술·가정) 교과와 개정 전과 개정 후의 교육내용을 분석하고 개선점 및 적정성을 평가하기에 앞서 개정 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정 후의 그 문제점의 개선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내

용들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변천과정에서 내용이 삭제된 것과 새로 도입된 것 등 의생활교육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전까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을 살펴보면, 나승일(1997)과 류청산(1997)은 초등 실과 의생활 영역에는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보고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내용으로 개선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 전 실과(기술·가정) 교과와 의생활 교육내용의 문제점으로는 초등 5, 6학년과 중학교 8학년, 고등학교 10학년 등 일부 학년에만 국한되어 있고, 교육내용의 연계성이 적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박일록, 이은희, 2002; 주인숙 외, 2006). 또한 초등 실과의 의생활 영역 내용은 2개 학년 모두 기능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의생활 기초이론 교육의 부재로 균형있는 의생활 교육이 어렵게 되어 있다(박순자, 2003). 중등 기술·가정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의생활 수업내용도 매우 제한되어 있고, 수업시수에 비해 무리하게 편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실습실 등의 시설부족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직접 체험과 경험으로 익힐 수 있는 교육환경이 제공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고등

학교의 경우(10학년) 기술·가정 교과내의 의생활영역은 기술과 가정의 통합으로 인하여 내용이 많이 축소되고 조정된 결과, 학습자들이 지식을 얻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이론 부분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손진숙, 신혜원, 2006)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왔다.

의생활 수업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관심에 부합되는 학습내용 전개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에서 미래를 향하여 의생활교육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거나 확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손진숙, 신혜원, 2006).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의생활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생활의 변화를 반영하여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학습내용을 제시하고 교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의생활교육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분석한 후 문제점과 개선점 및 발전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내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최근의 선호도와 흥미도, 학생들의 학습요구 내용을 선행연구에서 파악하고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제7차 교육과정이 실시된 2000년대 초부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된 의생활교육이 남녀공수로 실시되고 있으며, 지금은 제7차 교육과정의 의생활 교육내용 면에서 지적되어온 문제점이 개정 후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평가해 보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보아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로 첫째, 초·중등 교육과정의 실과 및 기술·가정과의 의생활교육내용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며, 둘째,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전과 후의 교육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개정 교육과정¹⁾에서의 개선된 면과 진보된 내용을 밝히는 것으로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역사적으로 학교교육 실시 이후 의생활 교육내용을 고찰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의생활교육내용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있으며, 또한 현행 교육과정 개정 전후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개선된 내용을 논의해 보고, 본 연구가 앞으로 행해질 교과서 내용 개편 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라는데 있다.

II. 선행연구 고찰

초등 실과 의생활 교육과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제6차 교육과정까지 의생활 영역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들(상정기, 1986; 강향녀, 1990; 박연상, 1996)이 있으며 그 대부분 기존의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특정 교육내용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정미경(1998)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의생활 교육내용이 현대사회의 의생활양식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를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홍예란(2003)은 제1차에서 제7차 교육과정기의 실과의 의생활영역에 한하여 그 변화 내용을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의 교과서 반영 내용을 분석한 후 의생활지도 자료를 개발하고 그 적용 예를 제시하였다.

교육과정상의 의생활 교육내용과 관련된 연구로 내용체계, 필요도, 요구도 등을 조사한 최근의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면, 이은희·전경란(1994)은 제1차에서 제5차 교육과정기까지 초·중·고등학교 의생활 교육과정의 체계를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교육내용의 필요도를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영역을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의복재료」 영역에서 초등교사는 실의 종류에 따른 특성에, 중등교사는 섬유의 종류에 따른 특성에 필요도 1순위를 두었다. 「의복구성」 영역에서는 초등교사는 재봉용구 갖추기, 중학교는 디자인의 원리, 고등학교는 바느질 방법에 1순위를 두어 학습자의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복관리」 영역에서는 초중등 공통적으로 관리보다는 세탁에 1순위를 두어 일치함을 보였다. 「의복차림」 영역에서는 단정한 옷차림보다는 의복의 기능에 1순위를 두었다. 「편물영역」에서는 초등은 대바늘뜨기, 중등은 코바늘뜨기에 1순위를 두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과와 기술·가정, 가정과학 의생활영역의 연계성을 분석한 이은주·신혜원(2007)은 영역별 세부항목의 수직적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의복차림」 영역에서는 「축소」된 내용이 46.1%로 가장 많았고, 「의복계획」 영역의 연계성

1) 2007년도에 이루어진 제7차 부분 개정 교육과정을 의미함.

은 「발전」된 내용은 없고 「반복」내용이 83.3%로 가장 많았다. 「의복재료」 영역에서는 「격차」와 「발전」의 연계만을 나타내고 있고, 「의복관리」 영역은 「축소」된 부분이 44.5%, 「반복」된 부분이 33.3%로 나타났다. 「의복구성」 영역은 「발전」된 내용이 50.0%로 후속학습이 선행학습보다 심화·확대된 내용이 가장 많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의복계획」 영역은 반복내용을 삭제하여 축소시키거나 발전적인 내용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으며, 「의복구성」 영역은 가장 내용구성의 연계성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수희·신상옥(1997)은 가정과가 남녀공수로 시작된 이후, 남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과의 의생활 교육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학교에서 배운 가정과 영역 중 가장 재미가 없었던 영역」으로, 남학생은 38.0%, 여학생은 42.9%가 의생활영역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첫째, 「의복제작이 싫어서」가 남학생 100%, 여학생 8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둘째, 「교수방법이 싫어서」가 남학생 16.7%, 여학생 13.3%로 나타났으며, 셋째, 「내용자체가 싫어서」가 남학생 13.3%, 여학생 31.0%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생활내용 자체를 더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여학생이 개인차가 더 심하다는 이유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제1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바가 있듯이 교육내용에서 필수와 선택영역을 두는 방법으로 성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강미향·오경화(2006)는 의생활단원에 대한 세부영역별 수업만족도 조사에서 「교과내용에 흥미정도」를 묻는 질문에 「옷차림 영역」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이는 성화경(199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고등학생도 코디네이션에 관한 학습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손진숙, 신혜원, 2006).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황선자, 정영숙, 1995)와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장혜숙, 조필교, 1995)에서도 「올바른(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이 요구도가 높고,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인식되어 옷차림 영역은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만족도나 요구도가 가장 높은 영역임을 알 수 있다.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영역은 최근에는 「의복재

료」영역으로 조사되었으며(강미향, 오경화, 2006), 과거에는 「의복 만들기」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이금남 외, 1996; 성화경, 1994). 「교과내용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역」으로는 「의복관리」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흥미있는 실험실습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는 「의복구성」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위의 4항목 모두 보통이하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세부영역별 필요도에서는 의복재료 영역이 가장 낮은 필요도를 나타내었으나, 이 영역은 또한 유일하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필요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이기도 하다. 교과내용의 적절성 조사에서도 문항 모두 보통 이하로 그다지 좋은 평가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수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방법과 교수매체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의생활 교육내용에서 개선점은 학생들이 필요도가 높은 이용가치가 있는 소품 및 패션 액세서리 만들기, 옷에 관련된 직업, 의복의 유행과 패션 따라잡기 내용 등 청소년들의 관심이 높은 내용으로 교체되거나 첨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강미향, 오경화, 2006).

백성희 등(2006)은 실과 및 기술·가정교과의 의생활 교육내용의 적정성을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초등학교에서는 「재봉틀 다루기」 및 「재봉틀을 이용하여 쿠션, 방석 만들기」 내용, 중학교에서는 「반바지(파자마) 만들기」가 학습량이 많고 교육수준에서도 80% 이상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이 의복구성 영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습량에서나 수준에서 「보통」이라고 평가하였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적정성 조사연구(주인숙 외, 2006)에서는 학습량에 대하여, 초등학생은 약 58%, 중학생은 52%, 고등학생은 64%로 학습량이 적당하다고 하여 그 비율이 50%를 넘었다. 이해도에서는 초등학생이 쉽다~어렵다, 중·고등학생은 적당하다~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려운 내용은 의복구성 영역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생은 재봉틀 사용, 쿠션, 방석 만들기, 중학생은 기본 바느질과 옷 만들기, 고등학생은 베게커버나 가방 만들기, 식탁보나 커튼 만들기 등 실습영역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상술한 교사 대상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흥미도는 초등학생은 재미있다~재미없다, 중학생은 재미없다, 고등학생은 보통이다로 인식하였다. 요구도는

초·중·고등학생 모두 필요하다~보통이다로 인식하고 있어 흥미도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학생들의 흥미도와 요구도가 낮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적절한 학습량과 수준의 조절로 학생들의 의생활교육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주경(2007)은 기술·가정교과 ‘옷 만들기과 재활용’ 단원의 교과내용 적절도와 개선요구사항에 관하여 중학교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내용수준의 적절도는 보통이상으로 나타나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세부항목에서는 재봉틀 사용법이 내용 수준과 그림 및 설명 자료, 실생활 도움 정도의 적절도 모두에서 가장 낮은 점수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내용의 개선이 필요함을 밝혔다. 바느질하기는 실생활에 가장 유용하다고 조사되어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기초바느질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옷 만들기과 재활용 단원의 교과내용 분량과 시수의 적절도는 보통이하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분량과 시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단원의 교과내용 개선요구사항은 바느질하기가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응답한 결과와 연계되어, 기초바느질 방법의 제시가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는 재봉틀 사용법에 대한 내용 개선으로 이 내용은 삭제하는 것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요인으로는 시간적, 환경적 요인과 실생활의 활용이나 필요가 낮은 요인으로 인해 재봉틀에 대한 내용의 필요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초등의 기초바느질 내용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중학교에서 반복, 심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III. 의생활교육의 역사적 고찰

1. 해방 전 의생활교육의 변천

1) 구한말 의생활교육

(1) 보통학교(초등) 의생활교육의 고찰

의생활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정학은 역사적으로 볼 때 현모양처, 가부장주의의 윤리와 가정기술로부터 시작되었고, 유교사상이 뿌리깊은 조선시대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여 여성에게는 남성과 같은 정규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사상이 지배하여왔다(신상옥, 1985). 그러므로 1886년 이화학당 설립 이전에는 가정을 중심으로 비형식적인 교육이 행해졌을 뿐이다. 전통적 유교사회에서는 여자가 학문하는 것은 婦道에 어긋나는 일로 간주하여 교육내용은 가내 범절과 가사기술, 덕육만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였을 뿐으로, 인륜도덕의 규범과 생활기술을 가르쳤다(신상옥, 1985). 이로부터 근대교육 이전의 의생활교육은 비형식적으로 가정기술, 가사기술, 생활기술의 일부로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근대교육이 시작되면서 형식적 교육으로는 처음으로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보통학교 여학생에게 ‘재봉’을 가르치면서 의생활교육이 시작된다. 미국의 여선교사들은 한국인의 생활풍속, 습관을 그대로 살리면서 합리적 사고방식을 길러 한국적 賢母良妻가 되도록 재봉, 자수, 조리, 가사 등의 기술·기능교육을 가르쳤다. 근대교육(2) 요람기(1885-1894이전)에는 ‘가사’와 ‘침공’이 교과목으로 개설되었는데 침공에서는 편물과 자수를 가르쳤다. 이 시대의 가정과교육은 생활교육의 성격이 짙었으며, 교육은 주로 실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정덕희, 1993).

1894년에서 1905년까지를 가정과교육의 맹아기(萌芽期)로 구분하는데, 이 시기는 소학교령을 중심으로 한 초등학교 심상과(저학년)와 고등과(고학년)의 가정과에서 의생활교육은 ‘裁縫’교과를 통해 여학생에게 이루어졌다. 재봉교과 목표에서 절약, 이용, 정신을 목표로 한 점은 이미 재봉교과가 가정교과를 대신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박순자, 2000).

1906년에서 1910년의 통감부(統監府)시대는 실업교육기로 구분되는데, 이 기간에 소학교가 보통학교로 바뀌면서

2) 개화교육, 종래의 한자교육에 대한 학교교육 중심의 교육 또는 전통적 유교교육 대신에 서구의 신문화를 섭취하려는 교육

‘재봉’은 ‘수예’로 바뀌었고, 수예는 여학생에게만 가르쳤다. 종전 소학교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재봉 외에 ‘자수’와 ‘편직’이 추가되어 더 확대되었다. 이 시기 또한 수예가 가정과를 대표하여 사실상 의생활교육이 가정과교육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구한말 보통학교에서는 의생활교육이 가정과교육을 대표하였으며 그 교과명칭도 근대교육요람기에 가사와 침공에서 시작하여 맹아기에는 재봉으로, 통감부시대에는 수예로 바뀌어 이수되었다. 또한 이때 자수와 편직이 추가되어 오늘날의 의생활교육내용의 많은 부분이 이때부터 시작되어온 것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2) 여학교(중등) 의생활교육의 고찰

구한말 민간인과 기독교에서 세운 사립여학교의 가정과에서는 ‘가사’, ‘재봉’, ‘침선’을 두었다. 이 시대의 가정과의 중심과목은 ‘재봉’이었고 그 후 수예가 추가된다. 1908년 고등여학교령을 선포하면서 고등여학교는 본과, 예과, 기예전수와 과정으로 구성되었는데 정규과정은 본과였다. 세 과정 중에서 기예전수과는 ‘재봉’과 ‘수예’에 치중하여 교과가 편제되어 예과와 함께 실업교육적 성격을 띠었다. 반면 본과는 현모양처와 관련된 교양교육적 성격이 강한 ‘家事’가 필수과목으로 편제됨으로써 교양교육이 강조되었다. 1908년에 공포된 고등여학교 시행규칙상의 가정과는 ‘가사’와 ‘수예’였다. 1909년에 고등여학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종전(1908년)보다 ‘재봉’의 비중은 상당히 높아진 반면, ‘家事’는 낮아졌다. 이 면을 제외하고는 가정과의 내용에서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고 단지 수예에 수세공이 첨가된 점이 다르다. 세 과정 중에서 기예전수과가 의생활교육의 비중이 가장 컸는데, 재봉과 수예시간이 총 28시간 중 22시간으로 79%를 차지한 것으로(정덕희, 1993) 보아 의생활교육이 ‘기술 및 실업교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관계를 중심으로 한 중등학교의 가정과교육은 기독교계와 민간인계만 있었는데 정선여학교가 가정과로 ‘가사’, ‘침공’, ‘침선’을 두었고 이화학당은 ‘재봉’을 두었다. 이 기간 동안의 가정과의 중심과목은 ‘재봉’이었다.

이 시기의 여학교 의생활교육은 보통학교와 마찬가지로 가정과교육의 전부였으며, 재봉, 수예, 가사, 침공, 침선 중에서도 재봉과 가사 비중이 큰 기술·기능교육이 주였다.

2) 일제강점기의 의생활교육

1911년에서 1945년까지는 조선교육령의 변천에 따라 4기로 나누어(정재철, 1985) 각 시기별로 의생활교육을 보통학교(초등)와 중등학교 의생활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보통학교의 의생활교육

제1차 조선교육령 시행기(1911-1922)의 보통학교의 가정과는 ‘재봉 및 수예’였으며, 여학생에게만 가르치도록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 상황에 따라 이 과목을 뺄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재봉 및 수예’가 전반적으로 교수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봉 및 수예’의 시수도 道長官의 인가를 얻어 학교장이 정하도록 道의 실정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기독교계 학교는 총독부 통제를 따르지 않고 家事 등을 교육하였다. 재봉 및 수예는 교과서 없이 교사 독자적인 교재로 교육하였다고 판단된다(정덕희, 1993).

제2차 조선교육령 시행기(1922. 2-1938. 3)는 제1차 조선교육령기의 보통학교의 ‘재봉 및 수예’는 ‘재봉’으로 바뀌었고 시수는 주당 2-3시간으로 전체의 약 6%-10%로 종전보다 감소하였다. 보통학교 고등과의 가정과는 재봉과 가사로 편제되었는데, 시수는 가사와 재봉을 통합하여 4시간이며, 전체 주당시수의 12.5%를 차지하였다. 1929년 보통학교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보통학교 가정과는 일대 비약을 하였는데, 가사 및 재봉을 이과 및 직업과와 관련지어 지도하도록 하여 가사의 직업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지역에 따라 수예를 가사 및 재봉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한 점도 종전과 다른 점이다. 가정과는 고학년에 편제되었으며 주당 시수는 2-4시간이었으며, 보통학교 고등과는 가사와 재봉이 독립된 교과로 편성되어 주당시수는 두 교과 통합하여 5시간으로 약간 많았다.

제3차 조선교육령 시행기(1938. 3-1943. 4)인 1938년에 조선교육령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소학교규정도 개정되었다. 심상소학교, 고등소학교에서 여학생에게 가사 및 재봉을 가르쳤으며 가사 및 재봉의 교육목표, 교육내용은 종전과 별 차이 없었다. 심상소학교보다 고등소학교에서 더 심화된 내용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고 간단한 수예를 추가로 과할 수 있게 한 점이 다르다. 심상소학교의 내용이나 시간 수는 종전과 비슷하나 주당 시수가 각각 1시간씩 늘었다. 고등소학교의 각 학년의 교수내용 및 시수는 가사와 재봉을 분리하였으며, 1, 2학년 각각 가사 2시간, 재봉 4시간으로 1929년보다 1시간이 늘어 6시간이 되었다.

1941년 국민학교령이 공포되어 광복 때까지 적용되었는데, 국민학교에는 초등과와 고등과를 두었고, 초등과는 수업연한이 8년, 고등과는 2년이였다. 국민학교의 예능과 속에 여학생을 위한 ‘가사 및 재봉’이 있었으며 주당 시수는 초등과가 재봉, 가사 각각 4, 5, 6학년에 3시간씩, 고등과가 재봉, 가사 각각 5시간으로 하였다. 초등과는 약 18.24%, 고등과는 약 29%를 차지하여 고등과의 비율이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정덕희, 서병숙, 1993). 이 시기에는 의생활교육이 가정과가 아닌 예능과에 속해 있었던 것이 종전과 다르다. 제4차 조선교육령기(1943-1945)는 1941년 공포된 초등학교령에 따라 제3차기와 동일하다.

(2) 중등학교의 의생활교육

제1차 조선교육령기의 가정과는 종전의 고등여학교였던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과목인 家事 및 手藝이며, 가사가 이과와 통합되면서 필수과목으로 되었다. 가사, 재봉 및 수예의 시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 교과 총시수 중 39-45%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가사, 재봉 및 수예에 큰 비중을 둔 것으로 보아 여자 수공예 교육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을 목표로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19년 3.1운동 후 일제는 식민지교육정책을 수정하기 위하여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칙을 개정하였다. ‘재봉 및 수예’의 주당 시수는 7시간으로 종전보다 3시간이 줄었고, 내용은 3개 학년이 동일하고 학년이 높을수록 수준만 높였다.

제2차 조선교육령기의 여자고등보통학교는 오늘날 여자

중학교 또는 여자고등학교 정도에 해당하는데, 1922년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정이 공포되어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가정과는 가사, 재봉, 수예로 가사와 재봉은 필수과목이고 수예는 수의과목(隨意科目)이었다. 수예나 가사 실습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할 수 있었다. 가사의 주당 시수는 학년별 2-4시간, 재봉은 4시간으로 배당되어 최고 학년의 경우 가사와 재봉 시간수를 합하면 8시간이므로 전과목 총시수의 27%를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1919년 때보다 약간 줄어든 것이다.

제3차 조선교육령기인 1938년에 고등여학교규정이 개정되었으나 가사 및 재봉의 교육목표는 종전과 비슷하였다. ‘家事’에서 ‘家政’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家政’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어 가정과교육 내용의 범위를 넓혔다고 보아진다. 또한 다른 교과목 내용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실제 응용을 강조한 점은 가사 및 재봉의 성격을 응용학문으로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예에서 심미감을 기르게 함으로써 실용적인 목적에 미적 정서함양까지 포함시킨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정덕희, 1993). 가사와 재봉은 전 학년에 편제되었는데, 가사보다 재봉시간을 많이 배정하였으며, 재봉은 학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4시간씩 배정하였고 가사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많이 배정하였다.

제4차 조선교육령기인 1943년 3월에 고등여학교규정이 공포되어 그 수업연한은 2-4년이었는데, 가정과 과목은 ‘家政’으로 바뀌었다. 가정과의 내용을 크게 家政, 육아, 보건, 피복의 네 영역으로 구분한 것도 큰 특징이다. 이 시기부터 현재 가정과의 영역구분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정, 육아, 보건을 묶어 1, 2학년에 2시간이 편제되었고, 3, 4학년에 각각 4시간이 편제되었다. 피복은 따로 떼어 전 학년 4시간씩 편제한 것으로 보아, 4개 영역 중 피복에 비중을 가장 많이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가정과는 전체시수의 20% 내외를 차지하였다.

이상을 고찰하면,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까지는 재봉, 수예, 가사가 가정과의 거의 전부였으며 이 중에서 ‘재봉’의 비중이 가장 높아 의생활교육이 가정과교육을 대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가정과교육은 기술, 기능, 실업교육에 치우쳐 있으며, 가정과는 여학생만이 이수하는

과목으로 고정시켰고, 보통학교 4, 5, 6학년에만 편제하였다. 일제강점기의 가정교육의 비율은 시수로 볼 때 현재의 약 3배 이상이었으며, 중등학교는 약 4-5배에 이르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실험실습 중심교육, 타 교과와의 연계지도를 실시하였고, 지역실정에 맞게 교과내용, 시수를 융통성있게 선택하게 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을 지역화한 점에서 높이 평가되며, 현재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정덕희, 1993). 일제강점기의 의생활 중심의 교육은 한국인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일본인을 위한 교육이었고, 교재도 대부분 일본의 가정생활에서 도출되었다(정덕희, 1993).

1929년에는 梨花女專 家事科가 설치되어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도 해방과 함께 본격적인 가정학이 시작되기에 이르렀고, 가정학의 연구주제는 가정생활 중심의 가사과목을 다루고 있었다.

2. 해방 후 의생활교육의 변천

1) 초등 의생활교육

해방 후 의생활교육은 1945년 가정과 교과목이 요리, 재봉이었던 것이 가사로 통합되어 5, 6학년에서 이수되어 오다가, 1954년 교육부령 공포로 '실과'로 통합되면서 실과에서 담당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교수요목기에는 5, 6학년 여학생만이 '초등가사'를 이수하였다. 광복 후 최초의 교과서는 재봉 및 수예로서 1946년에 발행되었고, 같은 해 교수요목이 제정됨에 따라 초등가사 5, 6학년용이 1947년에 발행되었다(정덕희, 1981). 1955년 우리나라 독자적인 교육과정이 제정되면서 실과가 정식으로 교육과정상의 교과로 제시되었고, 이때부터 의생활은 실과의 가정영역의 일부로 자리잡게 된다.

의생활교육의 변천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제1차 교육과정에서 실과의 10개 내용영역 중 독립영역으로 '재봉·뜨개'와 '세탁·염색' 영역이 편제되어 있고, '위생·보건' 영역에서는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재봉·뜨개 영역에서는 단정한 옷차림(4학년), 간단한 의류 만들기, 의류 수선, 간단한 뜨개 및 직조

(5학년), 간단한 뜨개 및 재봉, 수놓기(6학년)내용이 편제되어 있으며, 세탁·염색영역에서는 세탁, 간염색(5학년), 위생·보건영역에서는 깨끗한 몸차림(4학년), 병자의 옷과 침실의 관리(6학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당시는 시수도 많았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기능위주의 내용으로 현행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의 학습내용으로 편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바느질 영역이 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의복정리, 보관 내용은 극히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의 특징은 내용의 기능부분을 유일하게 남녀별로 구분 이수토록 한 데에 있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가정생활 내용을 전 영역에 분산하였으며, 의식주 관련 내용은 '생활향상' 영역에 포함시켜 다루고 있다. 제1차 교육과정과 차이가 거의 없으나 4학년 내용이 5학년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고, 6학년에서 의복재료와 재봉틀 쓰기가 제1차 때보다 좀 더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삭제되었던 '재봉·세탁' 영역이 재 편제되어 제1차 교육과정 영역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내용은 의복의 착장, 바느질, 의복의 관리 및 계획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계·기구조작' 영역에 재봉틀 다루기가 편제되어 있다. 이때 보건·위생영역은 체육과로 옮겨져 의복의 착장과 관리 및 계획영역이 강화되었다. 4학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옷 입기와 손질하기, 간단한 바느질, 5학년에서는 세탁준비와 세탁, 다림질, 의복의 간단한 수선, 6학년에서는 옷을 계획성 있게 마련하기, 바느질, 옷감의 성질과 짜임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 5학년에 편제되었던 단정한 몸차림과 바느질의 기초가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4학년으로 이동하여 의생활의 기초지식과 기능을 4학년에서 익히도록 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실과의 영역을 크게 바꾸어 4개 영역으로 통합 구성하였으며, 가정영역이 강화되었다. 의생활영역이 독립적으로 편제되지 않아 의생활 내용은 '생활기능' 영역과 '소비와 절약' 영역에서 다루어졌다. 4학년에서는 의복의 착용, 기초바느질, 옷의 손질 및 정리, 5학년에서는 빨래하기, 간단한 바느질, 6학년에서는 의생활 계획과 봉제, 현 옷의 재생, 기성복 고르기 내용으로 구성

되었으며, '소비와 절약' 영역에서는 4학년에서 낭비없는 의생활, 5학년에서는 옷감의 품질, 6학년에서는 의복의 선택과 구입 내용을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는 옷의 제작, 관리 및 보관 중심의 내용만을 다룬 것과는 달리 제4차 교육과정부터 의복의 선택과 구입, 유통, 기성복 고르기 등을 편제하여 의생활교육에서도 의류산업적인 대량생산과 소비 측면을 고려한 1980년대의 시대적 변화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제4차 교육내용 영역과 거의 동일하나 내용이 정선되었다. 즉 '생활기능' 영역에서 의복 착용, 의복관리, 의생활계획이 강화되었다. 4학년의 기초 바느질, 옷 입기와 손질하기, 5학년은 간단한 바느질, 빨래하기, 6학년은 의복의 선택과 구입, 현 옷의 활용 내용으로 대부분 생활기능'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소비와 절약'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을 행동중심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최초로 실과를 3학년부터 이수하도록 하여 3학년에서 의생활의 기초이론 내용의 일부가 다루어졌다. 이 시기의 의생활 내용은 '만들기' 영역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었고, 그 내용은 '바느질로 용품 만들기'로 5, 6학년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루기' 영역에서는 바느질 용구 다루기, '건사하기' 영역에서는 '옷 걸기 및 개기, 옷 바르게 입기 등 의복관리 내용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이때 시수가 주당 1시간으로 감소되었으므로, 그 결과로 심도있는 내용을 다루기에는 시간상 허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미경(1998)의 연구에서도 개선점으로 지적했듯이 이 교육과정기에는 내용영역을 행동중심의 4개 영역으로 통합함으로써 인하여 '만들기' 영역에 의생활 내용이 집중되어 있어 이는 현대사회의 의생활의 특성상 만들기 보다는 합리적 선택과 소비가 요구되는 시대에 다소 부응하지 못한 내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의 의생활영역은 3학년의 '건사하기' 영역을 제외하면 지나치게 바느질 내용의 기능위주로 편성되어 있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의생활 내용은 제1차~제5차 교육과정기까지 '의복 선택과 옷차림', '의복 및 용품 만들기', '수선과 피복위생'을 골고루 포함하고 있었는데, 제6차와 제7차에 이르면서

점차 '용품 만들기'로 축소되었다. 이수시간의 감소로 인한 관계도 있지만 제6차 교육과정까지는 그나마 '의복선택과 옷차림' 영역이 약 3%, '수선과 피복위생' 영역은 약 6%가 실과에 포함되어 있었다(이춘희, 2001).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 때는 이 이론부분마저 삭제되어 바느질 편중의 '용품 만들기'만으로 편제되어 내용의 축소와 함께 거의 전부가 실기내용으로만 편제됨으로 인하여 이론과 실기의 불균형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교육과정의 의생활내용 변천 중에서는 개정 전 제7차 교육과정이 가장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주당 시간 수의 변동은 없으나 학년의 변동이 컸는데, 5, 6학년에서만 이수하도록 하였다. 개정 전 교육과정에서는 3개 영역 중 '생활기술' 영역에 의생활 내용이 집중되어 있으며, '생활자원과 환경의 관리' 영역에서 옷장정리, 재활용품 만들기 등 일부가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제3차 교육과정 이후 삭제되었던 재봉틀이 재도입되었는데 이는 생활의 기계화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의생활 모습과, 휴대폰 등에 대한 관심과 증가하는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재봉틀을 사용하여 옷이나 용품 만들기 내용에 대한 교사, 학생들의 반응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학습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백성희 외, 2006; 주인숙 외, 2006) 학년에 맞게 학습내용 수준이나 양을 조절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교육현장의 현실성을 감안할 때 교육의 효과는 교사의 관심도와 기구와 설비의 차이로 학교 간 편차가 컸을 것으로 사료된다.

'생활기술' 영역은 제4차 교육과정기의 '생활기능' 영역과 유사한데, 이 시기에는 기초이론교육까지도 다루었다. 그러나 제7차에서는 기초이론 내용이 삭제되고 바느질 내용에 편중됨으로써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의생활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중등 의생활교육

광복직후의 중등가사의 주요 특징은, 초등가사와 광복직전의 일제강점기의 내용과는 많이 다르게 구성된 점에 있다. 광복직전에는 의, 식, 주 이외에도 가정생활에 필요한

〈표 1〉 초등 실과 교육과정 의생활 영역 내용의 변천 개요

구 분	근 거	의생활 내용 영역(학년)	특 정
제1차 교육과정 (1955-1963)	교육부령 제44호 (1955.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봉·뜨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정한 옷차림, 간단한 바느질, 간단한 빨래(4) ○ 간단한 의류 만들기, 의류 수선, 간단한 뜨개, 간이 직조(5) ○ 간단한 뜨개, 간단한 재봉: 앞치마 만들기, 수놓기(6) ● 세탁·염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세탁: 수건 빨기, 간이염색(5) ○ 세탁, 물들이기(6) ● 위생·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깨끗한 몸차림(4), 병자의 옷과 침실(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래의 직업, 요리·재봉, 공작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실과로 통합 * 10개의 내용영역 중 의생활 내용은 ‘재봉·뜨개’, ‘세탁·염색’의 2개의 독립 영역과 위생·보건 영역에 부분적으로 편제함 4, 5, 6학년 같은 영역 나선형 조직 * 내용의 기능 부분은 남녀 구분 이수 * 6학년 교과서 남녀 구분 편찬
제2차 교육과정 (1963-1973)	교육부령 제119호 (1963.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즐거운 나의 하루: 단추달기(4) ○ 나의 몸차림: 옷 손질하기와 빨래하기, 바느질(5) ○ 현옷 살려 쓰기: 옷(갑)의 종류, 재봉틀 쓰기, 앞치마 만들기, 아기 양말 뜨기, 물들이기(6) ○ 간호와 치료: 병자의 옷과 병실(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생활 내용은 전 영역에 분산됨 * 7개의 내용영역 중 의생활은 ‘생활향상’ 영역에서 다룸 * 모든 내용 남녀 구분 없이 이수 시작
제3차 교육과정 (1973-1981)	교육부령 제310호 (1973.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봉·세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정한 몸차림: 옷 입기와 손질하기, 간단한 바느질, 단추달기(4) ○ 의복의 손질과 보존: 얼룩빼기, 빨래준비, 빨래하기, 푸새와 다림질, 의복의 간단한 수선(5) ○ 의생활의 계획: 옷을 계획성있게 마련하기, 옷감의 성질과 짜임새, 주머니 만들기, 옷의 보관, 재봉틀 다루기와 손질(6) ● 기계·기구조작: 재봉틀 다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생활영역으로 ‘재봉·세탁’ 영역이 재편성되고, ‘기계·기구조작’에서 재봉틀 다룸 * 내용을 9개 영역으로 구성, 동일 영역 나선형 조직 * 단순 노작에 그치지 않고 창의와 능률, 실질을 고려, 성실하게 협동하는 태도 육성에 역점을 둠 * 모든 내용 남녀 공동이수 정착
제4차 교육과정 (1981-1987)	교육부고시 제442호 (198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정한 몸차림: 의복의 착용(4) ○ 간단한 바느질: 바느질의 기초, 옷의 손질 및 정리(4) ○ 빨래하기, 주머니 만들기(5) ○ 알뜰한 옷 마련: 옷과 옷감의 유통, 기성복 고르기, 현 옷의 재생(6) ● 소비와 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낭비없는 의생활(4) ○ 옷감의 품질(5) ○ 의복의 선택과 구입(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의 조직을 크게 바꾸고 4개 영역으로 통합 구성, * 의생활은 ‘생활기능’, ‘소비와 절약’ 영역에 편제함, 기성복 내용 처음 도입 * 실용적인 것 중시, 기본 기능 습득 강조 * 가정 영역 강화, 계발적 경험 확대 * 근검절약의 실천, 소비자 교육의 중시
제5차 교육과정 (1987-1992)	교육부고시 제87-9호 (1987.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정한 몸차림: 옷 바르게 입기, 옷의 손질과 정리, 검소한 의생활(4) ○ 간단한 바느질: 기초바느질(4) ○ 빨래하기, 주머니 만들기(5) ● 소비와 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인 소비생활(4), 의복의 선택과 구입(6) ○ 만들어 쓰는 기쁨: 덧소매 만들기(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교육과정의 4개 내용영역 유지 * 의생활은 ‘생활기능’영역에만 축소 편성함 * 기초적 생활기능의 정착, 근로 존중, 근검절약의 실천에 강조점을 둠 * 생활인으로서의 능력과 소비자로서의 자질 갖추게 함

구분 및 근거	교과명	내용 영역(학년)	특 징
1969 (제2차 부분 개정교육과정) 문교부령 제251호	실업·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여): 1, 2, 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생활, 수예 영역 편제 ◎ 가정(선택): 2, 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생활, 수예 영역 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와 선택으로 분리함 * 의생활 내용은 기술과 가정에 편제됨
1973 (제3차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325호	실업·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여): 1, 2, 3학년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생활 영역 ● 수공예 영역 편제 ◎ 가사: 1, 2, 3학년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봉 영역: 복장의 형태, 기초바느질, 부분 바느질 편성 ● 수공예 영역: 자수, 편물, 염색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자용 기술이 가정에 통합 * 가정과 가사 분리 가정은 필수로 함 * 의생활 내용은 가정, 가사에 편제됨
1981 (제4차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제442호	실업·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여): 1, 2학년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의복 영역 ◎ 가사: 3학년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봉 영역: 블라우스 만들기, 한복 차림, 동정과 치마허리 달기 ● 수예 영역: 자수, 수편물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는 1, 2학년까지로 함 * 3학년부터 선택 과목을 학습하게 함 * 의생활 내용은 가정, 가사에 편제됨 * 시간배당 축소
1987 (제5차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제87-7호	실업·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가정, 기술·가정 중 택 1 1-2학년 필수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생활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의 의생활(1) ○ 의생활 관리(2) ◎ 가사: 3학년 선택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생활 영역: 블라우스 만들기, 의류산업 ● 수예 영역: 자수, 편물, 수예 산업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생활 내용은 필수와 가정(기술·가정)과 선택의 가사에 편제됨 * 필수와 선택의 구분이 없어짐 * 기술·가정 과목 신설 * 선택과목 시간배당 축소
1992 (제6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	실업·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가정, 가사 과목 중 선택 · 선택과목수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생활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생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복의 기능과 옷차림, 의복의 선택 - 옷감의 섬유, 조직, 가공과 의복의 성능 - 의류의 세탁과 보관 - 의복구성의 기초, 간단한 의복의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경별 필수과목으로 시도교육청이 편성 * 기준단위를 2단위까지 증감하여 운영 가능 * 내용의 적절성, 분량과 수준의 적정성 보완 * 의생활 내용은 '의생활' 영역에서 다루어짐
1997 (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기술·가정 가정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생활의 실제: 직물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 가정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복의 선택과 착용: 의복의 선택과 구입, 의복의 착용방법 ○ 의복의 재료와 관리: 옷감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 의복의 세탁과 보관 ○ 의복의 디자인과 제작: 의복 디자인 원리, 한국 의복, 서양의복 ○ 편물과 자수: 수편물, 손자수, 의생활 관련 산업과 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생활내용은 1학년은 국민공통 기본교과인 기술·가정에서 이수됨 * 2,3학년은 심화선택과목으로 가정과학의 '의생활' 영역에서 이수됨

구 분	근 거	의생활 내용 영역(학년)	특 정
제6차 교육과정 (1992-1997)	교육부고시 제1992-16호 (1992.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느질 용구 다루기(5) •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느질(홈질)로 용품 만들기(5) ◦ 바느질(박음질, 단추달기)로 용품 만들기(6) • 건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차림 바르게 입기(3) ◦ 옷 정리하기: 옷 개기, 걸기, 보관하기(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수학년을 3학년부턴으로 확대 * 행동중심의 4개 내용영역으로 구성 * 의생활 내용은 ‘다루기’, ‘만들기’, ‘건사하기’ 영역에 편성되어 있으나 ‘만들기’영역에 집중됨 * 노작활동을 강조하는 실천중심의 내용체계 구축-신변에 가깝고 유용하며, 쉽고 기본적인 노작의 체험에 한정
제7차 교육과정 (1997-2006)	교육부고시 제1997-15호 [별책10] 1997.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늘과 실로 용품 만들기: 손바느질, 스킨 지수, 뜨개질, (5) ◦ 재봉틀 다루기: 기초박기, 간단한 생활용품 만들기(6) • 생활자원과 환경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환경 정돈하기: 재활용품 만들기, 옷장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공통기본교과로 5-10학년 동일하게 3개 내용영역으로 구성 * 의생활 내용은 ‘생활기술’ 영역에 집중됨 * 생활기술 영역은 제2차의 ‘생활상상’, 제4차의 ‘생활기능’과 맥을 같이 함 * 남녀 모든 학생 이수 * 실천적인 생활교육 내용 강화
제7차 개정 교육과정 (2007-)	교육부고시 제2007-79호 [별책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 입기와 관리하기: 나의 생활과 옷차림, 나의 옷 관리(5) ◦ 간단한 생활용품 만들기: 손바느질로 용품 만들기, 바느질 도구를 이용한 용품 만들기(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의 기본 틀은 개정 전과 동일 * 의생활 내용은 ‘가정생활’ 영역에 분산, 편제됨 * 의생활 내용은, 5학년에 기초이론, 6학년에 기능, 실기 내용 편제로 균형이름

※ 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과정의 교과서 반영내용을 포함함
 ● 대영역(대단원), ○중영역(중단원), *특징을 나타냄

광범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한데 비해 광복직후에는 중등은 의생활과 식생활, 주생활 중심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에서도 의생활영역이 중심을 이루었다(정덕희, 서병숙, 1993).

교수요목기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구분되지 않고 6년 과정으로 중학교 과정이 통합, 운영되었다. 교과목으로 실업이 있었는데, ‘실업’에는 여학생의 경우 가사, 재봉, 수예과목이 있었다. 당시 여자 중학교에서 운영되었던 가사, 재봉, 수예과목의 시수는, 1-2학년에서는 가사 및 수예가 주당 3시간, 재봉은 1~4학년 전부 2시간씩이었다. 5학년 실업과에서는 가사, 재봉이 4시간, 수예 2시간, 6학년

에서는 가사, 재봉 6시간, 수예 4시간으로 편제되었다(이연숙, 1997).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시기까지 가정교육은 의생활교육이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1차 교육과정기에는 종전의 가사, 재봉, 수예가 실업·가정으로 바뀌면서 남자는 ‘실업’, 여자는 ‘가정’이 이수할 교과가 되었다. 필수교과로 실업·가정은 각 학년 주당 5시간씩 배당하여 전 교과목의 15%를 차지하였다. 당시의 실업·가정과는 ‘농업생활’, ‘가정생활’, ‘공업생활’, ‘상업생활’, ‘어촌생활’ 5개 영역으로 구분되었고 분과적 지도방법을 지양하고, 통합적인 지도를 목적으로 모든 교과서 안에 그 내용을 전부 포함시키고 있다. 추가하여 의생활

〈표 2〉 중학교 의생활교육의 변천 개요

구분 및 근거	교과명	내용 영역(학년)	특 정
1955 (제1차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45호	실업·가정	◎ ‘농업생활’, ‘가정생활’, ‘공업생활’, ‘상업생활’, ‘어촌생활’ ● 수기공작: 방적, 염색, 편물, 재봉, 세탁, 재단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영역에서 통합적 운영 * 의생활과 관련있는 내용영역에 ‘수기공작’이 있음
1963 (제2차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120호	실업·가정	◎ 가정: 1, 2, 3학년(여) ● 의생활 영역 ● 수예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생활은 가정에 속해 있음

〈표 계속〉

구분 및 근거	교과명	내용 영역(학년)	특징
2007 (제7차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07-79호	기술·가정 가정과학	◎ 기술·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생활: 옷차림과 자기표현(7) ○ 가족의 생활: 의복의 선택과 관리(8) ○ 가정생활의 실제: 옷 만들기 고쳐 입기(8) ○ 가정생활 문화: 가족·소비생활문화, 식·의·주생활 문화(10) ◎ 가정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복과 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션의 이해와 디자인의 실제: 패션의 이해, 패션디자인의 실제 ○ 의복재료와 관리: 의복재료의 이해, 의복 구매와 관리 ○ 의복 만들기와 코디네이션: 의복 만들기와 재 활용, 토탈 코디네이션, '의복과 패션' 관련 산업 	* 의생활내용은, 10학년(고1)에서 는 기술·가정교과의 '가정생활' 대영역에 편제하여 이수하도록 함 * 11, 12학년(고2, 3)은 가정과학 의 '의복과 패션' 영역에서 이수하도록 함

◎ 과목명, ● 대영역(대단원), ○ 중영역(중단원), - 소영역(소단원)
* 특징을 나타냄

교육은 '수기공작' 영역에서 방직, 염색, 편물, 재봉, 세탁, 재단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제2차 교육과정기에는 1960년대 후반에 기술교육의 진흥과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역설되면서 중학교에 기술과를 신설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종래의 중학교 실업·가정교과(농업, 가정, 공업, 상업, 수산업) 외에 '남자 기술'과 '여자 기술'을 필수로 두었다. 의생활교육 내용은 가정과 1, 2, 3학년(여)에 '의생활 영역'과 '수예 영역'에 편제되어 있다. 그러나 1969년 교육과정 부분개정으로 기술교과와 가정교과에서 의생활 내용이 다루어지게 되어 필수 기술과(여)의 1, 2, 3학년에서 '의생활 영역'과 '수예 영역'에 편제되었고, 가정과(선택)의 2, 3학년에도 '의생활'과 '수예' 영역이 편제되어 필수와 선택교과에 모두 편제되었다. 이 시기는 가정이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이 되었고 기술(여)이 필수가 된 유일한 시기이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 실업·가정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되어 있어, 여학생의 경우, 가정을 필수로 1, 2, 3학년에서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가사는 선택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중학교 실업·가정과의 특징은 여학생에게는 가정을 필수과목으로 부과하고 또한 가사를 선택으로 부과한 데에 있다. 가정, 가사의 성격과 특징상의 차이에 관해서 논란이 되어온 것도 모두 이때부터 비롯된다. 의생활 내용은 가정과(여)에서 1, 2, 3학년 필수로 의생활

영역에서는 옷차림과 세탁 내용과 수예영역을 편제하였고, 선택과목인 가사에서는 재봉영역과 수공예영역에서 의복뿐만 아니라 자수, 편물, 염색까지 편제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기는 종래의 필수인 기술과 가정을 1, 2학년에서만 이수하도록 하였고, 선택과목인 가사도 3학년에만 이수하도록 하였다. '기술'이 '생활기술'로 바뀌었는데, 그 내용은 공업내용에 농, 상, 수산업, 가사 등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삽입하여 실업일반의 기본적인 기술과 내용을 갖추게 되었다. 의생활 내용으로는 1, 2학년 필수 과목인 가정에 '청소년의 의복' 영역, 3학년 선택과목인 가사의 재봉영역과 수예영역에 편제되어 심도있게 다루어졌다.

제5차 교육과정기의 중학교 실업·가정 교과에 기술·가정 과목이 신설되어 성별 구분없이 1~2학년에서 가정과 기술·가정 중 한 과목을 택하도록 하였고, 가사는 종전과 같이 3학년에서 이수하였으나 시간이 축소되었다(문교부, 1989). 의생활 내용은 1, 2학년 필수로 이수되는 가정(기술·가정)의 '의생활' 영역과 3학년 선택과목인 가사의 '의생활'과 '수예'영역에 편성되어 교육되었다. '가정'의 의생활내용으로는 청소년의 의생활, 의생활 관리, '가사'의 내용으로는 의복 제작, 자수, 편물, 의류 및 수예산업 등이 편제되었다(교육과정 교과서 연구회, 1988). 제5차 교육과정기부터 의류와 수예 산업 내용이 편제되어 초등 실과와 연계성을 가지며, 제3~5차 교육과정기에서는 가정과 가

사의 필수와 선택과목이 설정되어 이수학년이 다르기는 하나 내용영역에서는 유사함을 보였다.

제6차 교육과정기에는 중학교의 가정과가 독립교과로 되었고, 남녀 공통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가사과목은 가정에 통합되었다. 시수의 감소와 함께 내용상 많은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지도내용은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의생활 내용은 가정과목의 '의생활' 영역에서 1학년은 의복에 대한 이해, 2학년은 의복의 구매 단원이 편제되어 교육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중등 연계성이 강조되어 내용영역도 초·중등 동일한 3개 영역으로 5~10학년에서 이수하도록 편제하여 초등 실과와 중등 기술·가정을 하나의 교과로 연계시키고 있다(교육부, 1998). 의생활 내용은 8학년에만 집중적으로 편제되어 '생활기술' 영역의 의복의 마련과 관리 단원에서, 의복의 기능과 옷차림, 의복마련 계획과 구입, 옷 만들기과 재활용, 옷의 보관과 손질에 관한 내용을 편제하였다. 2007년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의생활내용이 '가정생활'이란 대영역에서 7학년은 청소년의 생활, 8학년은 가족의 생활과 가정생활의 실제 단원에서 다루어지며, 상세한 내용분석은 후술하기로 한다.

이상을 요약하면, 중학교 가정과의 의생활교육은 초등과 달리, 무엇보다도 교육과정기별로 교과목 명칭의 변화에 따라 의생활을 포함하는 영역도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제1차 교육과정기는 실업·가정교과의 통합적 운영, 제2차의 가정(여), 부분개정으로 기술(여) 편제, 제3차의 가정(여, 1, 2, 3학년) 필수와 가사 선택, 제4차는 3차와 동일하나, 가정(1, 2학년 필수)과 가사(3학년 선택)의 이수학년이 달라졌다. 제5차는 4차와 동일하나 필수과목으로 기술·가정이 추가되어 필수 2중 택1로 이수되었다. 제6차에서는 독립교과 가정이 남녀 공통으로 이수되었으며 제7차는 기술·가정으로 교과명칭이 변천하면서 의생활교육도 가정, 가사, 기술·가정에서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고등학교의 가정과교육은 전통적으로 전인교육에 근거한 여성을 위한 교양교육의 측면이 강조되어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남녀 모두를 위한 교양교육과 진로교육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다.

제1차 교육과정기에는 가정생활의 '피복생활' 영역에서

의복의 원료, 재봉, 수예, 세탁, 염색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제2차 교육과정기에는 '의생활' 영역에서 의복의 목적, 의복의 원료, 직물과 의복, 피복관리, 앞으로의 의복생활, 몸차림(미용 포함), 의복 만들기(한재, 양재), 수예(자수, 뜨기, 만들기, 수예염색)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기에도 '의생활' 영역에서 가족의 의생활, 의복재료의 선택, 의생활 경영의 능률화, 의류제작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기에도 '의생활' 영역에서 의생활의 의미, 의생활의 자원과 활용, 의류재료, 의복의 구성과 착용, 의복의 손질과 보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수에서는 제2차 개정에서부터 단위제로 바뀐에 따라 전체 이수 단위수 중 실업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고 10.4%-7.8%(4차)로 변동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기에는 '인체와 의복', '의복디자인과 구성', '의생활 관리'의 3개 영역으로 분리하여 편제하였는데, '인체와 의복' 영역에서는 섬유류, 실과 옷감, 인체생리와 의복 내용, '의복디자인과 구성' 영역에서는 의복디자인과 옷 만들기, '의생활 관리' 영역에서는 의복 구매, 세탁 및 간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5차 교육과정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과는 다섯영역으로 분류되었는데, 그 중 실업가정은 노작·실과(실업)교과로 10%를 차지하였다(문교부, 1989).

제6차 교육과정기에는 4차와 동일하게 '의생활' 영역으로 환원되어 의생활 관리에서 의복의 기능과 옷차림, 의복의 선택, 옷감의 섬유, 조직, 가공과 의복의 성능, 의류의 세탁과 보관, 의복구성의 기초, 간단한 의복의 제작으로 구성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전에는 기술·가정 교과와 '생활기술' 영역에서 의복의 마련과 관리가 편제되었고, 가정과학 과목의 '의생활' 영역은 의복의 선택과 착용, 의복의 재료와 관리, 의복의 디자인과 제작, 편물과 자수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술·가정 교과와 '가정생활' 영역, 청소년의 생활 단원에서 옷차림과 자기표현, 가족의 생활 단원에서 의복의 선택과 관리, 가정생활의 실제 단원에서 옷 만들기 고쳐 입기, 가정생활 문화 단원에서 식·의·주생활 문화로 편제되어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과학 과목에서는 '의복과 패션' 영역에서 패션의

이해와 디자인의 실제, 의복재료와 관리, 의복 만들기과 코디네이션, 의복과 패션 관련 산업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고등학교에서도 가사과목이 교육과정상에 하나의 과목으로 편제된 것은 제3차 교육과정기이다. 이때 가정과를 가정과 가사로 분리하면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 부분을 '가정'이라 하고, 가사실무에 관한 지식과 기능 부분을 '가사'라 하였다(문교부, 1989). 가사는 선택과목으로 이수되었는데, 의생활 교육내용으로는 가사의 5개 영역 중 4개 영역 즉 조리를 제외한 한재, 양재, 편물, 자수가 여기에 속하여 3, 4, 5차 교육과정에서는 의생활 교육내용이 '가사'에서 더 많이 다루어졌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 가사의 의생활 교육내용으로는 4개 영역 중 한국의복, 서양의복, 수편물 등 3개 영역이 속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도 가사과목의 내용으로 한국의복, 서양의복, 수편물, 가사와 관련 산업과 직업으로 구성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기의 기술과 가정은 8단위를 이수하도록 하였으나, 가사는 남녀 선택과목으로 6단위를 이수하도록 하였다. 가사의 내용영역으로는 5차 교육과정기와 크게 다르지 않고 한국의복, 서양의복, 수편물, 진로와 직업 영역에서 의복과 편물 관련 진로와 직업의 세계 이해하기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교육부, 1995).

가정과학의 경우는 개정 전후 동일하게 '의생활' 영역을 포함한 5개 영역을 고르게 이수시키거나 학생, 학교의 실정에 따라 관심있는 영역을 2개 이상 선택하여 집중 이수시킬 수 있으며, 영역에 제시된 내용은 학생의 발달단계, 흥미와 관심, 학교 실정, 지역사회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내용요소의 조합이나 순서와 비중을 달리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1998; 교육인적자원부, 2007). 따라서 교수학습에 있어서는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형식적 의생활교육은 역사적으로 100년간에

〈표 3〉 일반계 고등학교 의생활교육의 변천 개요

구분 및 근거	교과명	내용 영역(학년)	특 징
1955 (제1차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45호	실업·가정	◎ 가정생활 ● 피복생활 영역 ○ 의복의 원료, 재봉 - 바느질과 뜨개질 - 수예: 수놓기 - 세탁: 세탁, 얼룩빼기(1) ○ 재봉: 한국저고리, 양복, 내의(1), 여아, 남아의 의복, 작업복, 부인용 의복, 양복과 한복(3) ○ 수예: 자수, 뜨개질(2), 수놓기(3) ○ 염색: 물들이기(2), 천짜기(3)	* 교과목의 목표가 없고 과정별로 과목 성격과 목표, 지도상의 유의점, 지도내용이 통일성 없이 구성됨 * 의생활은 '가정생활'의 피복생활 영역에서 다룸
1963 (제2차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120호	실업·가정	◎ 가정일반, 일반관리 ● 의생활 영역 ○ 의복의 목적, 의복의 원료, 직물과 의복, 피복관리, 앞으로의 의복생활, 몸차림(미용 포함) ○ 의복 만들기: 한재, 양재 ○ 수예: 자수, 뜨기, 만들기, 수예염색	* 교과가 실업과 가정으로 분리 * 남녀의 이수과목 구분 * 여학생도 가정일반과 일반관리를 이수하도록 하여, 의생활영역에 있어서 학년별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음
1969 (제2차 부분 개정교육과정) 문교부령 제251호	실업·가정	◎ 가정(선택), 기술(여자용), 산업일반 · 지도내용: 개정 전과 변화 없음	* 실업과 가정이 분리 * 남녀의 이수과목 구분 * 남·여학생 모두에게 산업일반과 기술을 이수하게 함 * 가정과에 여자기술 신설 * 일반관리를 산업일반으로 교체 * 가정일반을 가정으로 과목명칭 개정, 선택과목으로 됨 단위수 축소 * 지도내용에는 변화가 없음

구분 및 근거	교과명	내용 영역(학년)	특징
<p>1973 (제3차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325호</p>	<p>실업·가정에 관한 교과</p>	<p>◎ 가정(필수), 가사(선택) 1학년: 가정 및 가사 수업 2, 3학년: 이의 직업에 관한 과목 이수권장</p> <p>● 의생활 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의생활: 의복의 기능과 변천, 몸차림 ○ 의복재료의 선택: 옷감의 성능, 옷감의 종류와 성질, 생산과 유통, 의복재료의 생산과 전망 ○ 의생활경영의 능률화: 의생활 계획, 의류의 구입 및 활용, 의류 정리 ○ 의류 제작: 의복 디자인의 원리, 양재의 재단과 봉제, 한재의 재단과 봉제, 수리와 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가정에 관한 교과로 하여 실업 및 가정을 같은 교과 구분에 넣음 * 산업일반, 기초공학 삭제 * 산업일반의 필요한 내용을 가정에 통합 * 여자기술도 가정에 통합 * 가사 과목 신설함 * 의생활교육은 ‘의생활’ 영역에서 다룸
<p>1981 (제4차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제442호</p>	<p>실업·가정</p>	<p>◎ 가정(필수), 가사(선택)</p> <p>● 의생활 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생활의 의의: 의복의 기능, 의생활의 발달 ○ 의생활의 자원과 활용: 의생활 자원의 실태, 의류의 유통과 소비 ○ 의류재료: 섬유 종류와 성능, 실과 옷감, 기타 섬유제품 ○ 의복의 구성과 착용: 의복의 디자인, 용도별 옷의 선택, 옷 만들기, 옷 입기 ○ 의복의 손질과 보관: 세탁,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명칭이 실업·가정으로 환원됨 * 남녀의 구분표시가 없어짐 * 교육과정상 이전에는 지도상의 유의점만 제시했으나 평가상의 유의점 신설 * 가사는 선택과목으로 계속 이수됨 * 의생활교육은 ‘의생활’ 영역에서 다룸
<p>1987 (제5차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제87-7호</p>	<p>실업·가정</p>	<p>◎ 가정 또는 기술·가정</p> <p>● 인체와 의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의 종류: 섬유의 종류, 성능, 감별 ○ 실과 옷감: 실의 종류 및 특성, 옷감의 종류 및 특성, 옷감 가공의 종류 및 방법 ○ 인체생리와 의복: 의복과 환경, 의복과 건강, 신체활동과 의복 <p>● 의복디자인과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복디자인: 디자인의 요소, 디자인의 원리, 색채와 재질, 체형과 디자인 ○ 옷 만들기: 파자마 만들기, 남자 한복바지 만들기 <p>● 의생활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복 구매: 의복계획, 의복 구입방법, 의복구입 장소의 종류와 특징 ○ 세탁 및 간수: 세탁의 필요성, 세탁용수와 세계, 세탁의 원리, 세탁방법, 의복의 손질 방법, 의복의 보관방법, 간단한 의복의 수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술을 기술로 명칭 변경 * 학교장 재량으로 이수단위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의생활 영역을 3개 영역으로 분리 * 의복의 기능을 삭제하고 인체, 의복,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의복의 위생적 기능 강조 * 옷 입기 삭제 * 의생활의 발달, 의생활 자원, 유통과 소비내용 삭제 * 의복의 선택과 관리 강조
<p>1992 (제6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p>	<p>실업·가정</p>	<p>◎ 기술, 가정, 가사 과목 중 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과목수 제한 없음 <p>● 의생활 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생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복의 기능과 옷차림, 의복의 선택 - 옷감의 섬유, 조직, 가공과 의복의 성능 - 의류의 세탁과 보관 - 의복구성의 기초, 간단한 의복의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정별 필수과목으로 시도교육청이 편성 * 기준단위를 2단위까지 증감하여 운영 가능 * 내용의 적절성, 분량과 수준의 적정성 보완 * 의생활 내용은 ‘의생활’ 영역에서 다루어짐

구분 및 근거	교과명	내용 영역(학년)	특징
1997 (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기술·가정 가정과학	◎ 기술·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생활의 실제: 직물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 가정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복의 선택과 착용: 의복의 선택과 구입, 의복의 착용방법 ○ 의복의 재료와 관리: 옷감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 의복의 세탁과 보관 ○ 의복의 디자인과 제작: 의복 디자인 원리, 한국 의복, 서양의복 ○ 편물과 자수: 수편물, 손자수, 의생활 관련 산업과 직업 	* 의생활내용은 1학년은 국민공통기 본교과인 기술·가정에서 이수됨 * 2,3학년은 심화선택과목으로 가정과학의 '의생활' 영역에서 이수됨
2007 (제7차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07-79호	기술·가정 가정과학	◎ 기술·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생활: 옷차림과 자기표현(7) ○ 가족의 생활: 의복의 선택과 관리(8) ○ 가정생활의 실제: 옷 만들기 고쳐 입기(8) ○ 가정생활 문화: 가족·소비생활문화, 식·의·주생활 문화(10) ◎ 가정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복과 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션의 이해와 디자인의 실제: 패션의 이해, 패션디자인의 실제 ○ 의복재료와 관리: 의복재료의 이해, 의복 구매와 관리 ○ 의복 만들기와 코디네이션: 의복 만들기와 재활용, 토탈 코디네이션, '의복과 패션' 관련 산업 	* 의생활내용은, 10학년(고1)에서는 기술·가정교과의 '가정생활' 대 영역에 편제하여 이수하도록 함 * 11, 12학년(고2, 3)은 가정과학의 '의복과 패션' 영역에서 이수하도록 함

◎ 과목명, ● 대영역(대단원), ○ 중영역(중단원), - 소영역(소단원)
* 특징을 나타냄

걸쳐 이루어져왔으며, 중등에서는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로 정착하여 1990년대 초까지 男女別學으로 계속되었다. 이는 남녀역할을 구분해온 유교적 사고방식이 학교교육의 가정교과목 이수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사료된다.

1990년 중반에 와서 드디어 중등 가정과는 남녀공수로 시행되기에 이르러 의생활교육도 남녀공수로 이수되는 변화를 맞이하였다. 2000년대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전 의생활교육은 8학년에만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학년 간 교육의 연계성이 문제시되었다. 현재 실과 및 기술·가정 교과는 남녀공수로 시행되고 있으나 내용구성 상에서 남녀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편제되었다는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번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 다음에 개정 교육과정을 상세히 분석하기로 한다.

IV. 제7차 교육과정 초등 실과 및 중등 가정과 의생활 교육내용 분석

1. 교육과정 개정 전후의 초등 의생활영역의 교육내용 비교 분석

2007년 교육과정의 개정은 수시 부분개정이므로 제7차 교육과정의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본 교육과정을 실시해 본 결과 운영상의 문제점과, 교육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재조정, 보완되었다. 또한 실과, 가정과, 기술과 교육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구성하고,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표 4) 초등 의생활 영역 교육과정 개정 전후의 내용체계 비교

영역 및 학년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대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 일의 이해 ● 생활기술 ● 생활자원과 환경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생활 ● 기술의 세계 	* 대영역을 가정과 기술영역으로 구분하여 초, 중등의 연계 강화함
5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늘과 실로 용품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킨자수 - 뜨개질 - 손바느질 ○ 생활환경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상과 옷장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 입기와 관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생활과 옷차림 - 나의 옷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바느질은 6학년으로 이동, 스킨자수는 삭제함 * 신체발달과 위생에 따른 자신의 의생활 관리 능력 강조, 옷장 정리하기 내용을 이동시켜 포함함 * 의생활 기초이론 내용을 포함함.
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봉틀 다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박기 - 간단한 생활용품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생활용품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바느질로 용품 만들기 - 바느질 도구를 이용한 용품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봉틀 다루기’ 단독단원을 바느질 단원에 통합 * 바느질 도구로 대바늘, 코바늘, 재봉틀, 수예바늘 등 다양한 바느질 도구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대영역(대단원), ○ 중영역(중단원), - 소영역(소단원)
* 특징을 나타냄

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따라서 교과서 내용을 보강하고 수준별 보조교재를 제작하며 학교별 여건에 따라 융통성있게 운영하도록 하였다.

교육과정 개정 시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방법, 평가 등은 실제로 그 양적, 질적으로 중요성이 내용에 못지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과정 개정 시 주목받은 것은 내용이었으므로(전세경, 2006), 우선 교과목의 목표를 간략하게 비교한 후, 그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 전과 후의 실과 및 가정과 교육과정(교육부, 2007)의 의생활 내용을 비교하였다.

먼저 목표를 비교하면, 개정 전의 목표는 ‘개인과 가정, 산업생활의 이해와 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가정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정보화, 세계화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데’ 두었다. 그러나 2007년 부분개정으로 교과목의 목표는 ‘나의 삶, 가정생활, 산업기술의 세계에 대한 지식, 능력, 가치 판단력을 함양하여 건강한 개인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산업기술에 대한 기본 소양을 습득하여 현재와 미래 가정생활과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 전의 개인과 가정, 산업생활 대신 개정 후에는 나의 삶, 가정생활, 산업기술의 세계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고, 개정 전의 목표에서 지식, 기능으로 제시했던

것을 개정 후에는 지식, 능력에 가치판단력이 추가되어 건강한 개인, 가정생활을 강조하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교육내용을 비교하면,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내용체계의 대영역 분류에서만 보이던 개정 후에는 가정분야와 기술분야로 양분되어 초등에서도 가정이 1/2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단원과 관련된 특징과 주요사항을 분석하여 표의 비교란에 제시하였다.

개정 전 의생활 내용은 5, 6학년 모두 바느질, 뜨개질, 스킨자수 등 기능만으로 구성되어 그 이전 교육과정에도 있었던 의생활 기초이론 교육내용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지나친 기능위주의 내용을 선택의 형태로 바꾸어 다양성은 인정하면서, 내용은 축소되었을지라도 기초이론도 포함시킴으로써 균형있게 보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학생의 발달단계와 신체위생을 고려하여 5학년에서는 ‘옷 바르게 입기’ 능력과 자신의 의생활 관리 능력이 강조되고, 의생활 기초이론이 편제되었으며, 6학년에서는 기능 내용으로 재봉틀, 뜨개질, 수예 등 다양한 바느질 도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 교육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박순자, 2007).

2. 교육과정 개정 전후의 중등 의생활영역의 교육내용 비교 분석

<표 5>에는 중등 기술·가정 및 가정과학 내용체계를 가정과의 의생활영역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가정생활’ 영역을 독립적 대영역으로 편제함으로써 가정과 기술 영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 전 중등의 가정분야의 의생활 내용은 8학년에만 편제되어 있던 것이 개정 후에는 7, 8학년의 2개 학년에 고루 편제되어 있어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지도를 하기에는 더 적합하다고 보아진다. 이 이수학년의 조정으로 제6차 교육과정에서와 동일하게 이수학년이 정해져 학년에서는 회귀현상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 학년에 많은 양의 내용을 집중 편제하는

것보다 동량의 내용일지라도 2개 학년 이상에 분배하여 편제하는 것이 교육상 바람직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후 내용편제에 있어 상세히 기술하면, 가정생활 대영역에서 7학년은 ‘청소년의 생활’ 단원에서 옷차림과 자기표현, 8학년은 ‘가족의 생활’ 단원에서 의복의 선택과 관리, ‘가정생활의 실제’ 단원에서 옷 만들기 고쳐 입기, 10학년은 ‘가정생활 문화’ 단원에서 식·의·주생활 문화를 다루게 되었다. 학년 간 분산과 균형으로 한 학년에 집중되었던 문제점은 개선되었으며, 기능위주의 내용도 이론, 실기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련지어 생활의 역사 속에 우리 고유의 생활모습까지 생각하게 하는 통합적인 의생활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편제하였다.

〈표 5〉 중등 의생활 영역 교육과정 개정 전후의 내용체계 비교

교과영역 및 학년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기술·가정> 대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 일의 이해 ● 생활기술 ● 생활자원과 환경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생활 ● 기술의 세계 	* 초, 중등 동일하게 대영역을 ‘가정’과 ‘기술’의 2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연계 강화함
7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생활 - 옷차림과 자기표현 - 청소년의 소비생활 	* 개정 전 의생활은 8학년에만 편제되어 있었던 것이 개정 후에는 7, 8학년의 2개 학년에 고루 편제됨
8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복의 마련과 관리 - 의복의 기능과 옷차림 - 의복의 마련계획과 구입 - 옷 만들기과 재활용 - 옷의 손질과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생활 - 의복의 선택과 관리 ○ 가정생활의 실제 - 옷 만들기 고쳐 입기 	* 의생활이 2개의 중단원에 편제되어 있으며, 가족생활, 가정생활 내의 의생활이라는 통합적 접근을 하고 있음
10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생활의 실제 - 직물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생활 문화 - 식·의·주생활 문화 	* ‘가정생활의 실제’ 단원은 8학년으로 이동. ‘가정생활문화’ 단원으로 변경하여 생활문화 속의 의생활문화로 접근함.
<가정과학> 11-1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생활 ○ 의복의 선택과 착용: 의복의 선택과 구입, 의복의 착용방법 ○ 의복의 재료와 관리: 옷감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 의복의 세탁과 보관 ○ 의복의 디자인과 제작: 의복 디자인 원리, 한국의복, 서양의복 ○ 편물과 자수: 수편물, 손자수, 의생활 관련 산업과 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복과 패션 ○ 패션의 이해와 디자인의 실제: 패션의 이해, 패션디자인의 실제 ○ 의복재료와 관리: 의복재료의 이해, 의복 구매와 관리 ○ 의복 만들기과 코디네이션: 의복 만들기과 활용, 토탈 코디네이션, ‘의복과 패션’ 관련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12학년(고2,3)은 가정과학의 ‘의복과 패션’ 영역에서 이수하도록 함 * 편물과 자수 삭제

● 대영역(대단원), ○ 중영역(중단원), - 소영역(소단원)
* 특징을 나타냄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히 8학년에는 2개의 중단원에 의생활 내용이 배정되어 있어 이론과 실기(실습)를 병행하는 균형있는 의생활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 개정이 막 완료된 상태이므로 아직 신교과서가 출판되기 전이어서 교과서 내용분석은 이후 과제로 남겨졌다.

11, 12학년의 심화선택 과목인 가정과학에서는 ‘의생활’ 영역이 ‘의복과 패션’ 영역으로 개편되어 의복의 선택과 착용 단원이 패션의 이해와 디자인의 실제로, 의복의 디자인과 제작이 의복 만들기과 코디네이션으로 단원명이 변경되었다. 또한 편물과 자수 단원은 삭제되었다.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로, 앞으로의 교육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를 최근의 선행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예측해 보면, 이수희·신상옥(1997)의 조사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중학교 가정과에서 가장 재미가 없었던 영역으로 의생활 영역을 들었는데, 재미가 없었던 이유로는 ‘의복제작이 싫어서’, ‘교수방법이 싫어서’, ‘내용자체가 싫어서’ 순으로 나타났다. ‘의복제작이 싫어서’에 남학생은 100%의 응답을 보여, 교육내용에서 성별에 따른 필수와 선택영역을 두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의 의생활단원에 대한 세부영역별 수업만족도 조사에서 ‘교과내용에 대한 흥미정도’는 ‘옷차림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성화경, 1994; 강미향, 오경화, 2006), 고등학생의 경우도 코디네이션에 관한 학습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손진숙, 신혜원, 2006). 이를 반영하여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가정과학에 코디네이션이 추가되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황선자, 정영숙, 1995)와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장혜숙, 조필교, 1995)에서도 ‘올바른(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이 요구도가 높고,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인식되어 옷차림 영역은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만족도나 요구도가 가장 높은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에서 7학년의 ‘옷차림과 자기표현’을 추가함으로써 반영되었다.

요구도가 가장 낮은 영역으로는 근래에는 ‘의복 만들기’ 영역(이금남 외, 1996; 성화경, 1994)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조사한 연구(강미향, 오경화, 2006)에서는 의복재료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역’은

의복관리 영역, ‘흥미있는 실험실습이 이루어지는 영역’은 의복구성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위의 항목은 모두 보통이하의 만족도를 나타내어 학생의 흥미와 관심 면에서 영역별 비중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내용의 적절성 조사에서도 결과가 그다지 좋은 평가로 나타나지 않아, 수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방법과 교수매체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의생활 교육내용에서의 개선점은 학생들이 필요도가 높은 내용을 고려하여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에 단원명칭이 ‘의복과 패션’으로 변경되었고, 디자인과 토탈 코디네이션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실과, 기술·가정, 가정과학의 의생활 내용의 연계성 면에서 전반적 수직적 연계정도는 「축소」와 「반복」 「격차」보다 「발전」된 내용이 많으나 「발전」의 정도가 그리 높지 않아 교육내용의 수직적 연계가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은주, 신혜원, 2007). 따라서 이 사항은 초·중등 내용의 연계성과 내용의 심화정도를 잘 고려하여 내용편제 시 단순 반복이 되지 않도록 개정 시마다 계속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백성희 등(2006)이 조사한 실과 및 기술·가정교과의 의생활 교육내용의 적정성 조사에서 내용이 어렵고 학습량이 많다고 지적된 의복구성 영역의 초등학교의 ‘재봉틀 다루기’ 및 ‘재봉틀을 이용하여 쿠션, 방석 만들기’ 내용, 중학교의 ‘반바지(파자마) 만들기’ 내용에 대하여 초등에서는 개정 후에 교육여건과 난이도 등이 고려되어 재봉틀, 여러 가지 바늘용구로 용품 만들기로 선택의 여지를 두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중학교에서는 개정 전과 동일학년인 8학년의 ‘옷 만들기, 옷 고쳐 입기’로 만들기만이 아니라 고쳐 입기도 포함시켜 내용과 선택의 폭이 넓어져 다소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또한 김주경(2007)의 연구에서 중학교 내용에 기초바느질의 필요함을 나타내었는데, 초등과 연계하여 중학교에서는 바느질 내용이 심화되도록 의복구성 영역에서 보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998년 미국 국가기준 교육과정에서는 ‘섬유와 의복’ 영역에서 의생활 내용을 섬유, 의복관련 직업에 필요한 지식, 기능, 실천을 종합한다. 로 제시하고 있다(NASAFACS, 1998). 우리나라에서도 의복소재 및 관리,

의복구성, 패션디자인, 의류관련 직업 등의 내용은 계속 교육되게 될 것이다. 여기에 학생의 발달단계상 의복의 기능과 의복위생 내용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내용도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대상황에 맞추어 구성되어야 하므로, 「의복의 선택」 시대에 맞추어 의복 선택 내용에 태그(tag) 보는 방법 등의 내용을 강화하여 의복소재의 발전에 따른 신소재의 조성에 맞는 취급방법 등 의복관리 면에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재봉틀의 보급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개성의 시대를 맞아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다품종 소량화의 생산활동이 이루어져 수공업으로 하는 기능, 기술, 예술(품) 등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아지므로, 의생활의 기능교육이 과거의 목은 주제로만 과소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같은 영역의 내용을 교육할지라도 내용들에 대한 의미와 이해방식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교육방식도 달라져야함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생활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의생활 문제 해결 접근방식에서도 달라져야한다. 인간에 가장 근접한 환경으로서, 인체의 미를 연출하고 신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의생활면을 교육하는 데는 생체로서의 인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새로운 소재 제조나 기능성 부여로 인한 가공제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생산과 소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인간의 실제생활과 지식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의생활 교육내용을 문헌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학교교육법 이전의 가정생활에 관한 교육을 고찰하였다.

둘째, 본격적으로 형식적인 학교교육이 시작되는 구한말부터 시작하여 이후 해방 전과 후로 분류한 후 의생활교육의 변천을 고찰하여 내용상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전과 후의 의생활 교육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으며, 미래의 의생활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 학교교육법 이전의 가정생활에 관한 교육은 비형식적으로 가사기술, 생활기술, 가정기술의 일부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구한말과 해방 전의 의생활교육은 재봉, 수예, 가사 위주의 교육이었으며, 이때부터 오늘날 의생활 내용이 대부분 교육되기 시작하였다.

해방 후에는 가정교과 속의 의생활 영역으로 자리매겨진다. 제1차 교육과정기부터 제5차 교육과정기까지는 시수도 많고 내용도 심화되었으며, 특히 제4, 5차 교육과정기에는 가정생활 영역이 강화되는 계기를 맞아, 가정 필수과목과 가사 선택과목이 편제되었던 만큼 이 시기까지 가정과의 의생활교육은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

제6차 교육과정기에는 시수는 줄었으나, 학년의 확대와 함께 이론과 실기의 균형은 고려되었으며, 중등 가정과는 독립교과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기에 초등은 기능편중의 균형이 맞지 않은 의생활교육이 이루어졌고, 중등은 기술·가정의 교과와의 통합으로 인하여 명칭에 있어서는 독립성이 없어지고 내용면에서도 축소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의생활 내용 개정 전과 후를 분석한 결과, 개정 전의 실기 위주의 불균형적인 의생활 교육내용에서 개정 후에는 학년간의 균형있는 분배, 내용에서 이론과 실기의 균형있는 배분,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의생활교육상 많은 개선과 진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내용으로 편제되었는지는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졌다.

2. 제 언

의생활 교육내용도 가정교과의 기본요구와 같은 내재적 원리 이외에도 학습자의 요구나 사회적 필요성과 같은 외

재적인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교육과정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히 학습자 중심의 본 교육과정 하에서는 학습자의 요구내용도 고려,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 초등 실과의 재봉틀로 용품 만들기는 상급학년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으며, 중학교의 의복구성 영역에서는 의복제작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을 소품 또는 패션액세서리 제작 등도 포함시키며, 옷차림 영역에서는 유행을 고려하여 옷 차려입기와 같은 학생들이 관심있는 내용의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둘째, 교육과정의 틀을 바꾸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므로, 변화하는 사회, 생활상황을 학교교육에서 발맞추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개정과는 별도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과정 개정보다 자주 정기적으로 개편하여 내용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생활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 종래와 같은 교육내용과 지도방법으로는 실생활과의 거리(gap)가 생김은 명백하다. 학생들의 가치관은 다양화 되고 있고 그만큼 흥미와 관심과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충실한 의생활교육을 요구하는 시대에 맞게 내용은 물론 수업체제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년 수업개선에 관한 연구 수행 결과의 공통적인 핵심을 현장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구체적인 단계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생활에 중점을 둔 인간의 생활환경을 보다 합리적으로 영위하는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의생활교육은 학생들의 발달과 교과목의 학문적 입지와 국가·사회적 요구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미향, 오경화 (2006). 의생활영역에 대한 중학생의 수업 만족도 및 필요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2), 63-77.

강향녀 (1990). 國民學校 實科 教育課程 및 教科書 變遷過程.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편(1988). 한국 교과교육과정의 변천.

교과서연구총서·3.

교육부 (1994). 교육부 고시 제1992-16호에 따른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III).

_____ (1995a).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에 따른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해설.

_____ (1995b).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에 따른 고등학교 실업·가정과 교육과정 해설.

_____ (1998).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실과(기술·가정)교육과정 [별책 10]).

교육인적자원부 (200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I]).

박연상 (1996). 초등학교 실과 교육과정의 변천에 관한 고찰.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주경 (2007). 기술·가정교과 내의 ‘옷 만들기와 재활용’ 단원에 대한 수업운영 실태 및 교과내용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승일 (1997).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실과교과서의 타당성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논총, 제10집, 279-311.

류청산 (1997). 제6차 교육과정용 교과서의 학년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0(2), 1-24.

문교부 (1989). 문교부 고시 제87-7호 중학교 실업·가정과 교육과정 해설.

박순자 (2007). 실과 및 가정과교육의 철학적·사회적 배경 고찰과 미래방향 탐색.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1), 13-29.

_____ (2000). 한국과 일본의 실과 및 가정과교육의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순자, 신상옥 (2000) 한국과 일본의 실과 및 기술·가정과 교육의 역사적 변천 비교.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2(3), 65-76.

빅순자 (2003). 한국의 실과 가정내용과 일본의 家庭科 내용 비교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6(2), 83-102.

박일록, 이은희 (2002). 의생활 교육내용의 계열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4(1), 39-54.

백성희, 이혜자, 한영숙 (2006). 실과 및 기술·가정교과에서 의생활 교육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한**

- 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3), 97-117.
- 상정기 (1986). 실과 교육과정 변천에 의한 의생활 교육내용의 변화에 관한 연구. 부산교대논문집 제22집, 제1호.
- 성화경 (1994). 중·고등학교 가정과목 의생활분야 교육내용: 학생, 교사, 전공교수의 요구도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6(1), 61-72.
- 손진숙, 신혜원 (2006). 기술·가정교과 내의 의생활영역에 대한 선호도, 인식, 필요도, 실천도, 학습요구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3), 149-161.
- 송해균, 정성봉, 류청산, 서우석 (1998). 초등실과교육학. 서울과학사.
- 신상욱 (1985). 우리나라 여자 중고등학교의 가정과 교육내용에 관한 고찰-전통시대의 여성교육과 관련하여-. 중대논문집, 제29집(인문과학편), 295-317.
- 이금남, 김행자, 안영희, 이남기 (1996). 고등학교 가정과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영역별 필요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8(1), 1-10.
- 이수희, 신상욱 (1997). 남녀 중학생의 의생활영역 학습내용과 학습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2), 115-130.
- 이연숙 (1997). 가정과교수법. 신광출판사.
- 이은주, 신혜원 (2007). 초등 실과, 기술가정, 가정과학 내 '의생활' 영역의 연계성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1), 1-14.
- 이은희, 전경란 (1994). 초·중·고등학교 의생활 교육과정의 체계정립 및 필요성 조사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6(1), 43-60.
- 이춘희 (2001). 초등학교 실과교과에 반영된 가정과 교육내용 분석.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혜숙, 조필교 (1995). 중학교 가정교과서 식생활 및 의생활 단원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활용.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7(2), 113-123.
- 전세경 (2006). 실과 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실과교과의 본질과 현상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9(2), 195-218.
- 정덕희 (1993). 舊韓末 開化期부터 8.15광복까지의 家政科 教育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덕희, 서병숙 (1993). 8. 15 光復 直前·後의 家政科 教育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1(2), 1-14.
- 정덕희 (1981). 한국의 가정과교육의 변천에 관한 연구Ⅱ(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변천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논문집 제14집.
- 정미경 (1998). 현대 의생활 변화에 따른 초등실과 의생활 교육내용 타당성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1(2), 91-107.
- 정재철 (1985). 일제의 대한민국식민지교육정책사. 일지사.
- 주인숙, 이혜자, 한영숙 (2006). 실과 및 기술·가정 교과에서의 의생활 교육내용 적정성에 대한 학생의 인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3), 81-95.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
- 홍애란 (2003). 실과 교육과정의 의생활 교육내용 분석 및 지도자료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선자, 정영숙 (1995). 중학교 가정과 학습내용에 대한 예비 중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7(2), 35-50.
- NASAFACS·V-TECS (1998).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Education National Standards.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의생활교육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문헌연구로 의생활 교육내용을 문헌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고찰하였고, 2007년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학교교육법 이전의 의생활에 관한 교육은 비형식적으로 가사기술, 생활기술, 가정기술의 일부로 행해져왔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학교교육이 시작되는 구한말부터 시작하여 이후 해방 전과 후로 분류하여 의생활교육의 변천내용을 상세히 고찰하였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 전과 후의 의생활 교육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논의하였다.

구한말과 해방 전에는 재봉, 수예, 가사 위주의 의생활교육이었으나, 해방 후에는 가정교과 속의 의생활 영역으로 자리매겨졌다. 제1차 교육과정기부터 제5차 교육과정기까지는 시수도 많고 내용도 심화되었으며, 특히 제4, 5차 교육과정기에는 가정생활 영역이 강화되는 계기를 맞았다.

제6차 교육과정기에는 시수는 줄었으나, 학년의 확대와 함께 이론과 실기의 균형은 고려되었으며, 중등 가정과는 독립교과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기에 초등에서는 기능편중의 균형이 맞지 않은 의생활교육이 이루어졌고, 중등은 기술과 가정 교과의 통합으로 인하여 명칭에 있어서는 독립성이 없어지고 내용면에서도 축소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 후의 의생활 내용은 학년간의 균형있는 분배, 내용에서 이론과 실기의 균형있는 배분,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의생활교육상 많은 개선과 진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내용인지는 앞으로 더 연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졌다. 의생활 교육내용이 가정교과의 기본요구와 같은 내재적 원리 이외에도 학습자의 요구나 사회적 필요성과 같은 외재적인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과정의 기본원칙이므로 학습자 중심의 본 교육과정 하에서는 패션소품 제작, 유행을 고려한 옷차림 등 학생들이 관심있는 내용을 고려,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가치관이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의생활에 흥미와 관심과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충실한 의생활교육이 요구되는 시대에 맞게, 내용은 물론 수업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 생활에 학교교육이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과정 개정주기보다 자주 정기적으로 개편하여 내용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논문접수일자: 2007년 4월 24일, 논문심사일자: 2007년 5월 2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8월 13일